주택대출 금리 연중 최고
서민들 '이자폭탄' 현실로

1년새 0.81%P 급등…1억원 빌리면 年 이자부담 81만원 늘어

김연아씨(가명·여·42)는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들을때 마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

지난해 12월 얘들 교육을 위해 광주시 남구 봉선동 P아파트 33평형에 입주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최근 우리은행에 문의해 본 결과 자신이 대출받은 금리가 대출당시 연 5.75%에서 1년만에 6.55%로 0.8%포인트가 올라 늘어난 이자만 80만원이 됐다는 것을 알았다.

김씨는 "큰 맘 먹고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서 왔는데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의 월급으로는 늘어난 이자가 부담스럽다"며 "문제는 앞으로도 이자가 오를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지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대출담보를 끼고 내집을 마련한 서민들이 이자부담에 고통받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은행들의 우대금리 폐지에 따른 현상일 뿐만아니라 시장금리인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 대출자들도 금리인상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8일을 기준으로 시중 및 지방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연 5.41~6.71%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66~5.9%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에 최저 0.75%에서 최고 0.81%포인트 급등한 셈이다.

외한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도 5.61~7.01%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신한은행도 5.51~6.81%로 연중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또 국민은행은 11일부터 주택대출 금리를 지난주보다 0.04%포인트 올린 5.72~6.72%로 적용해 연중 최고치에 도달할 예정이며 하나은행도 이번주에 0.05%포인트 높인 5.76~6.46%를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은행도 최근 0.04%포인트 올려 '마이 홈 플러스 론'은 연 5.63~7.53%, '스위트 홈 론'은 5.83~6.6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주택대출 금리가 오르는 원인은 은행들이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주택대출 금리를 결정하는데 CD금리가 계속오르는 데다 우대금리 폐지로 가산금리도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기준으로 CD유통수익율은 4.71%로 3년8개월만에 CD금리가 최고치에 달했고,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이후 은행들이 0.2~0.3%수준인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가산금리도 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신규 대출자들도 금리인상에 떨고 있다.

지난달 광주시 북구 용봉동 S아파트에 입주한 이정선(여·52)씨는 "주택담보대출로 8천만원을 받았는데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위원은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이다보니 금리인상이 가계부담으로 작용해 경제성장의 중요 축인 소비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가계發 금융위기'… 은행권 부실화 우려

주택대출 고정금리 전환 시급

금융연구원 보고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할 경우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따라 장기분할상환 방식의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연구위원은 10일 '최근 보금자리론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들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크게 축소된 반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4분기중 보금자리론의 공급규모는 4천538억원으로 작년동기의 8천985억원 대비 49.5% 줄었다. 반면 11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잔액은 213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천억원 증가하며 2002년 9월의 5조7천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원금 일시상환 방식이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금리 연동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98%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만기연장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거나 금리급등으로 이자부담이 가중될 경우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필수기자 bungy@

금융민원 Q&A

차량점검중 사고

Q:'쇽 업소바' 이상 생겨 차체 깔려 부상 당했다면?

A:車로 인한 사고 인정…보험금 수령 가능

Q : 오모씨는 자신의 차량 밑에 들어가 점검하다가 차체가 내려앉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다. 보험회사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까.

A : 자동차보험약관상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자신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보험 자동차의 당해 장치(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중에 그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씨가 자동차를 점검하기 위해 정차한 후 차량밑에 들어간 행위는 "자동차를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의 당해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인 경우"로 볼 수 있다. 점검중 '쇽 업소바'에 이상이 생겨 차체가 내려앉으면서 깔려 상해를 입은 것은 "그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자신의 화물차에 짐을 싣고 가다 차를 세우고 기울어진 짐을 정돈하기 위해 밧줄을 당기다 밧줄이 끊어지면서 땅에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지급될까?

이 경우 고무밧줄은 적재함에 짐을 고정시킬때 사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피보험 자동차의 당해 장치로 인정하기는 곤란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처럼 보이더라도 ▲피보험 자동차의 당해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했으며 ▲그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 국번 없이 1332〉

금호고속, 中 육상 장악 나서

11번째 합자사…117개 노선 차량 593대 운행

금호고속이 중국 육상노선 장악에 나섰다.

금호고속은 10일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 중국내 11번째 합자회사인 '길림길운금호운수유한공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 합자회사는 금호고속과 중국의 '길림길운집단'이 자본비율 49 대 51로 설립한 회사로 총 자본금은 850만달러이며, 20개의 노선에 60대의 차량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이로써 금호고속은 중국에서 117개 노선에 차량 593대를 보유하게 돼 2008년까지 차량 1천대 보유목표에 다가서게 되는 등 중국 육상노선 장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금호고속은 지난 95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무한한광공로운수유한공사'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선전·청두 등에 합자 회사를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중국에서 76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아우디' 광주전시장 오픈

삼성생명 광주콜센터 1층…내일부터 영업

아우디 공식딜러 고진모터스 아우디 광주전시장(소장 이대행)이 12일 광주역 맞은편 삼성생명 광주콜센터 1층(사진)에 문을 열고, 본격 영업에 들어간다.

한국 출범 2년을 맞는 아우디코리아는 그간 한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 수입차 부분 4위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일궈왔다. 올해 이미 판매목표 3천500대를 넘어섰으며, 이번 광주전시장 오픈을 계기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14% 늘어난 4천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우디코리아는 내년 뉴A4 카브리올레, 고성능 프레스티지 세단 S6 ,S8, 뉴TT쿠페·로드스터, R8 등 8종 이상의 신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광주점은 아우디전용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문의(062)525-8777.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中企도우미 시스템' 오픈 기념 게임 이벤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중소기업도우미 SPi 1357시스템 오픈 1주년을 맞아 11~24일 온라인게임 이벤트를 갖는다. 이번에 실시하는 이벤트는 중소기업인들에게 흥미 유발은 물론, 많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SPi 1357시스템의 대국민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를 원할 경우 SPi 1357시스템(www.spi.go.kr) 또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로 접속하면 이벤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벤트 응모자에 대해 추첨을 통해 노트북·네비게이션 등 푸짐한 상품을 지급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디지털카메라 'GX-10' 출시 삼성테크윈이 지난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 DSLR(Digital Single Lens Reflex·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 'GX-10'출시기념 쇼케이스에서 모델들이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GX-10'은 삼성의 세번째 DSLR카메라로 이날 행사에는 150명의 마니아들이 몰려 스튜디오 촬영 등을 체험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